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15.(금) 10:00 (2026. 5. 15.(금) 석간)

정부 - 8대 배달 플랫폼사, 안전한 배달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과 8대 배달 플랫폼사 안전보건 협약 체결
- 플랫폼 운영방식 안전성 강화, 폭염 등 이상기후 대응, 종사자 권익 보호 등 추진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5월 15일(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기업(8개사):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유),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카카오모빌리티, 인성데이타㈜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성장 중인 배달대행 시장과 폭염·한파 등의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배달 종사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되었다.

우선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뜻을 모았다. 특히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능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을 설계·운영한다.

다음으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하였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기상 악화 시 불이익 없는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을 보장**하여 종사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편, **배달 플랫폼 기업**은 이번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하였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이마트24 편의점 3천여 곳**에 **쉼터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제공**한다. 또한 폭염 시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 권고, **배달시간과 관련한 독촉이나 패널티 정책 미시행** 등 **선제적인 여름철 기상 악화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는 금년 5월부터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하여 **주요 정비 품목**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시 휴식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약 17만 개의 아이스커피 쿠폰** 지원과 **지자체·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생수·이온음료 2만병**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아낌없이 보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귀감이 되어 **업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서
3.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책임자	과 장	이지은 (044-202-8962)
		담당자	사무관	공세현 (044-202-8898)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백우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팀 장 (직무대행)	마철훈 (044-201-4153)
		담당자	사무관	김미굉 (044-201-4158)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책임자	총경	유동배 (02-3150-2052)
		담당자	경정	전영식 (02-3150-21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협약식 개요

□ 개요

○ **(목적)** 안전하고 건강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 배달 플랫폼사간 '22년 협약문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협약 체결

* '22년 최초 협약 이후 자동화된 배차시스템 고도화,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심화 등 **변화된 배달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배달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차 협약 체결**

○ **(일시)** '26. 5. 15.(금) 10:00~10:4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5층 컨벤션룸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및 8대 배달 플랫폼사* 대표 등

* 우아한 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카카오모빌리티, 인성데이타
↳ 국토부 인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8개사(생활물류서비스법 제17조 근거)

□ 주요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	개회사,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
10:05~10:10	5′	장관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장관
10:10~10:25	15′	체결식 참여자 인사말	각 1분 30초 내외
10:25~10:40	15′	업무 협약식 (서명 및 사진촬영)	참석자 전원

※ 행사 전체 공개

붙임 2 **협약서**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

1. 목적

이 협약은 소화물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륜차 등으로 소화물을 배달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체결한다.

2. 협약 이행

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체결기업"이라 한다)과 정부는 종사자가 복수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체결기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상호 협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약을 이행한다.

3. 이행 내용

체결기업과 정부는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며, 정부는 협약 미체결 기업에도 이 협약에 따른 내용을 권장한다.

가. 종사자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체결기업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플랫폼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

①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기회 부여 방식이 과도한 건수 또는 속도 경쟁 등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②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능 중심으로 운영

③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④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 기능, 일 단위 플랫폼 이용 내역 확인 기능, 고충제기 창구 등 종사자 편의 및 소통 기능 확충

나. 폭염·한파 등 기상 악화를 고려한 안전보건조치

체결기업과 정부는 폭염·한파·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협력한다.

① 기상악화 시 안전·경고 메시지 사전 송출 등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 신속 안내
② 생수, 냉·난방용품 등 안전용품 지원
③ 쉼터 정보 제공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
④ 다양한 형태(편의점, 이륜차 정비센터 등)의 쉼터 제공 확대
⑤ 기상 악화 시 불이익 없는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 보장

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체결기업은 상시적·정기적으로 종사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 등을 제공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체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종사자의 사고 사례 및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② 종사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구 종류와 사용 방법
③ 이륜차의 안전한 운전 방법, 이륜차 점검 및 정비 방법
④ 교통, 도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비 방법
⑤ 휴대전화 거치대, 배달 장비 등의 올바른 장착 및 이용 방법
⑥ 질병, 피로, 음주 등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⑦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⑧ 산업안전 및 도로교통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라.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등

체결기업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체결기업과 정부는 보험사 또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통해 배달종사자 맞춤형 유상운송보험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부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사자에 대한 배달 재촉, 폭언, 배달과 무관한 요구, 특정한 배달 방법의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체결기업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종사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교육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 지원

체결기업과 정부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홍보, 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며, 아래의 사항을 협력한다.

① 휴식공간 확보, 개인 보호구 및 배달용품 구매, 이륜차 점검·정비

② 종사자와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 계약서 또는 약관 등을 사용하고 해당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배달종사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신원 검증 강화

④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확대를 위한 종사자 유상운송 종합보험 가입 권고

⑤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4. 제도 개선

정부는 체결기업이 협약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가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정부는 체결기업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5. 협약의 유효 기간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 3개월 전까지 탈퇴 의사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6. 결어

체결기업과 정부는 협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2026. 5. 15.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 **권 오 중**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김 명 규**	바로고 대표이사 **이 태 권**
		代
부릉 대표이사 **채 윤 서**	래티브 대표이사 **문 지 영**	로지올 대표이사 **채 헌 진**
		代

인성데이타 대표이사 **최 현 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류 긍 선**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	국토교통부 장관 **김 윤 덕**	경찰청 청장 직무대행 **유 재 성**
	代	代

붙임 3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 실제 현장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배달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 협약에 함께해주신
우아한 청년들 권오중 대표이사님,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이사님,
바로고 조병익 CPO님,
부릉 채윤서 대표이사님,
래티브 문지영 대표이사님,
로지올 윤성열 이사님,
인성데이타 최현환 대표이사님,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배달 일터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국토부와 경찰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 의의

잠시 시간을 돌려 우리가 이 협약의 첫 발을 뗐던
2022년 1월을 떠올려봅니다.

당시 우리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이것만은 같이 지켜보자”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날의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정부와 배달 플랫폼이 함께 책임을 나누겠다는
첫 번째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배달은 더 이상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고,
배달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 위에서 묵묵히 달리는
배달 종사자분들의 고단한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늘어난 배달 주문으로
시간에 쫓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의 배달 방식이
과연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화답하기 위해
그간의 변화를 디딤돌 삼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약속인 「제2차 안전하고 건강한 배달 일터 협약」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협약 주요 내용

이번 협약은 1차 협약 때의
음식 배달이라는 특정 영역을 넘어
모든 소화물을 포함함으로써 배달 업계 전반까지
종사자 보호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릅니다.

이제 제2차 협약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갈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달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에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의 가치를 심겠습니다.

배달 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능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이제는 일상이 된 폭염과 한파를
배달 종사자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배달 플랫폼사와 정부가 나서겠습니다.

뙤약볕 아래 시원한 물 한 모금과
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는
사고를 막는 확실한 예방약이자
우리가 종사자들에게 건네는 노동 존중의 상징입니다.

폭염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 상황을
배달 종사자에게 실시간 전파하고,
힘들 때 물 한 모금 마시며 쉬어갈 수 있도록
생수를 지원하고 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배달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종사자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배달 종사자 전용 보험상품을 보급하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참여 독려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해주신 기업들의
안전을 위한 실천은
배달업계 전체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수많은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게
오늘의 이 약속이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전이 모든 일터에서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협약식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